

## 수직적 사회질서, 다중 연결망, 뇌물공여 간 관계에 대한 연구\*

The Relationship among Vertical Social Order, Multiple Networks, and Bribery in Korea

김 우 식(Kim, U Sic)\*\*

###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vertical social order, multiple networks and bribery in South Korea. This article sets apart two networks which are bribery-prone and not bribery-prone. Given the diverse linkages between networks and bribery, this article investigates whether vertical social order, a dominant feature of Korean society for years, mediates the two variables. Based on a social survey data, this article shows household income and authoritarian attitudes, two indicators and components of vertical social order in Korea, increase the log-odds of bribery both with and without interaction effects with multiple network activity. The effects of vertical social order upon bribery show contrasting mechanisms: those with high status and power resource, or highly authoritarian attitude can experience significant weakening of risk cognition related with bribery, while those with low status and power resource coupled with authoritarian belief may find themselves lacking means to obtain their purpose other than the risky behavior of bribery. Both mechanisms are closely related with multiple networks.

Key words: social network, bribery, multiple association, multiple favoritism, vertical social order, authoritarian attitude

\*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NRF-2012S1A3A2033902). 설문조사 자료를 제공해준 한국사회과학자료자료원, 석현호, 윤정구 교수  
에게 감사드린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I. 들어가며

사회관계나 사회연결망이 긍정적인 사회자본으로서만 기능하지 않고 뇌물공여의 원인이거나 공간이 된다는 점은 학술연구나 일상적 담론에서 흔히 언급된다(권오성, 2005; 김동훈, 2002; 김우식, 2002, 2012; 백완기·전수일·하태권·박종구·이선우, 2000; 신의항·송효환, 2003; Baker and Faulkner, 2004; Granovetter, 2007; Kim and Whitaker, 2012). 연결망은 범죄문화를 매체하기도 하고(Browning, Feinberg, and Dietz, 2004; Younts, 2008),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며(Portes, 1998), 범죄자들에게 사회자본을 제공하기도 한다(Browning et al., 2004). 이 담론에 따르면 한국에서 학연, 지연, 혈연으로 구성되는 연고주의가 부패의 통로나 원인이 된다.

한국에서 사회연결망을 통한 뇌물공여는 널리 퍼져 있고, 학연, 지연, 혈연, 직장동료, 거래관계 등 여러 가지 연결이 결합하는 복합연결망이 중요한 통로 혹은 매체가 되고 있으며 뇌물의 위법성이나 처벌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이 둔감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Kim and Whitaker, 2012). 이런 추세는 개인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발전된 국가들에서 연결망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했던 초기 연구들에 비하면 다양하고 현실을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연결망과 부패 간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는 연고주의 연결망이 뇌물공여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지만 연결망 특성에 따라서는 뇌물공여와 무관할 수 있는 점까지 주목하지 못했다. 즉, 뇌물공여로 이어지는 연결망과 그렇지 않은 연결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고주의 연결의 효과(김우식, 2002; Kim and Whitaker, 2012), 이웃들과의 삼자구조와 이웃들의 준법정도(박바름·김석호·김병수, 2011), 사회문화의 급변으로 인해 나타나는 아노미의 효과(윤정구·석현호·이재혁, 2004)를 밝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사회질서의 영향을 경시한다는 점이다. 연결망 활동이 항상 뇌물공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수직적 사회질서가 매개변수나 촉진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한계를 염두에 두고 연고주의 연결망이 뇌물공여로 연결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사회적 관계가 뇌물공여로 연결되는 데 수직적 사회질서가 중요한 요인임을 보이고자 한다.

## II. 이론적 검토

### 1. 뇌물공여와 관련되는 연결망의 다양한 성격

뇌물공여는 공식적인 의무를 가진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그로 하여금 직책의 임무를 위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상을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김우식, 2012; Johns and Bagaric, 2002). 뇌물공여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뇌물공여가 가능하려면 위험과 불확실성을 완화해주는 요인이 필요하다(Kollock and O'Brien, 1992). 김우식(2011)은 위험을 완화해주는 환경으로 사회연결망을 들었고, 주관적인 요인으로 주관적 정당성과 인지된 처벌 가능성을 들었다. 연결망은 인지되는 처벌확률과 위법성을 약화시키므로 객관적 환경이면서 주관적 요인이기도 하다. 잠재적인 뇌물공여 상황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확률을 바꾸는 사회자본은 기회, 정보, 신뢰로 볼 수 있다(김영중, 1996; 김우식, 2012).

학연, 지연, 혈연의 맥락을 더 분석하여 뇌물공여로 이어지는 연결망과 그렇지 않은 연결망을 구분해야 한다. 학연, 지연, 혈연은 기본적으로 잠재적인 연결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뇌물공여와 연결시키려면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행위자에 따라서는 연고주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도 뇌물공여로 연결시킬 의도나 필요가 없을 수 있고, 연고주의 연결망 속에 있더라도 뇌물공여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 요인을 다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

### 2. 수직적 사회질서와 사회 연결망

뇌물공여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누락된 변수는 수직적 사회질서이다. 지배적인 사회질서, 즉 구조와 문화로 기능하는 수직적 사회관계와 권위주의적 문화는 뇌물공여에서도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직적 사회질서가 중요한 변수라면 연고주의 연결망이 작동하더라도 수직적 사회질서와 결합되지 않으면 뇌물공여와 같은 부패행위가 나타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연결망 요인에 수직적 사회질서를 추가하여 살펴본다면 뇌물공여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를 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결망이 제공하는 기회, 정보, 신뢰가 뇌물공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직적 사회질서가 미치는 영향을 점을 검토한다. 우선, 연결망이 행위자들에게 유리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점을 살펴본다(Baker and Faulkner, 1993, 2004; Brass et al., Skaggs 1998; Gambetta, 1993). 연결망을 통해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연결망을 뇌물공여에 동원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연결망 구성원이 상하 관계에 있거나 학교나 고향 선배와 같이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제3자를 동시에 알고 있을 때 기회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지위가 동등한 행위자들 사이에서는 행위를 조정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연령, 지위

에 따르는 수직적 사회질서가 지배적인 한국에서는 연결망을 동원할 때도 수직적 사회질서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정보의 차원을 본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 행위자들은 공개된 정보원보다는 개인적인 연결망을 통해 믿을만한 정보를 얻는 경향이 있다(Beckman and Haunschild, 2002). 연결망은 또한 공유되는 해석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정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Powell, Koput, and Smith-Doerr 1996; Reagans and McEvily 2003). 이러한 정보의 제공과 획득에서도 수직적 사회질서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사회적 지위가 다른 행위자들이 관여하거나 수직적 질서를 내면화한 행위자들이 개입할 경우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에서도 나타나듯 권위의 영향을 받아 위험판단을 타인에게 맡기고 자신의 인식은 무디어질 수 있다(Nissani, 1990).

신뢰의 차원을 보자면, 뇌물공여와 같은 위험상황에서 기회와 정보에 추가하여 뇌물공여 행위가 안전하다는 주관적 믿음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연결망에 의해 구성되는 믿음의 공유, 공통의 세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김우식, 2012; Brown and Duguid, 1991; DiMaggio, 1997; Milroy and Milroy, 1992; Orr, 1990; Zelditch, 2001). 수직적 사회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권력을 더 많이 가진 행위자가 권력을 덜 가진 행위자에게 권력을 내세워 위법행동을 강요할 수 있다. 또한 주관적으로 수직적 사회질서를 내면화한 행위자는 지위가 높은 상대의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 있다. 따라서 연결망을 통한 뇌물공여 상황에서 필요한 신뢰 요인은 수직적 사회질서에서의 권력이나 권위주의의 내면화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 3. 연고주의 다중 연결망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연결망 구조는 학연, 지연, 혈연이 복합된 다중 연결망(multiple networks)이다. 다중 연결망은 다양한 성격의 연결이 이어주는 복수의 연결망을 가리킨다. 다중 연결망에 대한 주요 연구를 보면, 다수의 연결이 갖는 개별효과를 비교하기도 하고(Gibbons, 2004) 정보나 질병의 전파에서 다수의 연결망이 동시에 작동할 때의 효과를 보기도 하며(Centola, Macy, and Eguiluz, 2005), 연결망 범위의 개념을 사용하여 다양한 노드들과의 연결이 갖는 효과에 주목하기도 했다(Burt, 1983; Granovetter, 1973; Haines and Hurlbert, 1992).

세 가지 연고주의 연결망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은 동일한 연결망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특수한 기준을 적용하는 특수주의적 태도와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태도를 갖는다(권오성, 2005; 김동훈, 2002; 백완기 외, 2000; 신의항·송효환, 2003; 유의영, 2003; Parsons and Shils, 1951). 이들 연결망을 유지하는 행위는 관계적 교류(relational association)와 연결망 특혜(within-network favoritism)로 볼 수 있다(김우식, 2012; Kim and Whitaker, 2012). 전자는 동창회, 향우회, 중친회에의 관여를 통해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고 후자는 동일 연결망 구성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다(Johns and Bagaric, 2002).

관계적 교류와 관련하여 학연 연결망에서 보편적이고 영향력이 큰 것은 고등학교 동창회와 대학교 동창회이다. 동창들은 취업, 승진, 사업 등 다양한 기회에서 도움을 주고받는다(김동훈, 2002; 신의항·송효환, 2003; 유의영, 2003). 향우회는 고향이 같은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유지된다. 동일한 향우회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연을 통해 취직, 승진, 투표에서 혜택을 주고받는 점이 알려져 있다(신의항·송효환, 2003; 유의영, 2003). 세 번째 연고주의 연결망은 종친회를 중심으로 하는 혈연 연결망이다. 종친회는 동일한 가문에 속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혈연 연결망을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지연이나 혈연은 지금도 유의미한 연결망이 되고 있어서 가족, 친척이 취업, 승진할 때 영향을 미친다(권오성, 2005). 세 단체는 연결망을 유지하는 조직적 기반이 되는데 행위자들은 이들 연고주의 단체에 복수로 관여하면서 다중 연결망을 유지한다(김우식, 2012).

연결망 특혜는 동일 연결망 구성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가리킨다. 연결망 특혜는 구성원들이 특정 집단 내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고받는 연결망 내 교환(within-network exchange)이다(DiMaggio and Louch 1998). 연결망 특혜도 학연, 지연, 혈연의 세 차원에서 작용할 수 있다. 행위자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 연고주의 연결망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면서 다양한 사회자본을 이용한다(권오성, 2005; 김동훈, 2002; Burt, 2002; Coleman, 1988; Putnam, 2000; Schuller, Baron, and Field, 2000).

### Ⅲ. 연구 방법

#### 1. 연결망의 다양성

학연, 지연, 혈연 연결망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은 관계적 교류와 연결망 특혜 여부를 교차시켰을 때 행위자들이 관계적 교류와 연결망 특혜를 직결시키는가이다. 이 작업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연결망 관련 활동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 관여하는 행위자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관계적 교류를 행하지만 연결망 구성원에 특혜를 주지는 않는 행위자들이 있을 수 있고, 관계적 교류는 행하지 않아도 연결망 구성원에 특혜를 주는 행위자들도 있다.

**연구문제 1.1:** 관계적 교류와 연결망 특혜라는 두 연결망 변수를 교차시켰을 때 행위자들의 분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변수는 강하게 상관되는가, 아니면 어느 한 가지 연결망에만 관여하는 행위자들이 존재하는가?

다음은 두 가지 연결망 행위가 뇌물공여로 나타나는가를 본다. 연고주의 연결망을 뇌물공여로 연결시키려면 잠재적인 연결망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행위자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연고주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뇌물공여로 연결시킬 의도가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수 있고, 연고주의 연결망 속에 있더라도 뇌물공여로 이어지는 단계나 요인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연구문제 1.2:** 관계적 교류와 연결망 특혜는 뇌물공여 여부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연결망 변수와 뇌물공여 변수는 강하게 상관되는가, 아니면 어느 한 가지에서만 활발하게 활동하는 행위자들이 존재하는가?

## 2. 수직적 사회질서의 효과

수직적 사회질서는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객관적 지위구조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권위주의적 태도의 양자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객관적 지위구조를 대표하는 가구소득 변수와 권위주의적 태도가 뇌물공여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 우선, 객관적, 주관적 수직적 사회질서가 연결망 변수와 결합하거나 독자적으로 뇌물공여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수직적 사회질서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럴수록 뇌물공여에 따르는 위험을 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다중 연결망을 보다 더 활발하게 활용함으로써 뇌물공여에 따르는 위험을 실제로 완화하거나 혹은 주관적인 위험인식을 낮출 것이다. 이런 행동은 뇌물공여 확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뇌물공여 확률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다중 연결망 변수와 결합하여 뇌물공여 확률을 높이는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할 수 있다.

**연구문제 2.1:** 객관적 지위구조를 대표하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뇌물공여 확률이 높아지는가?

**연구문제 2.2:** 다중 연결망 활동이 활발할수록 뇌물공여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커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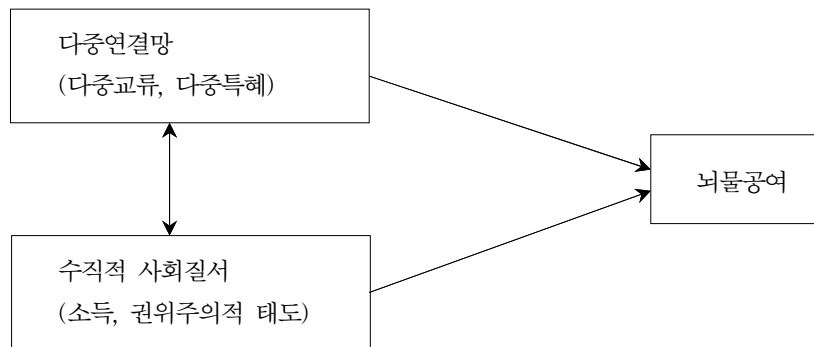
수직적 사회질서에 순응하는 권위주의적 태도는 지위가 높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지위가 낮아서 권력에 복종하려는 사람 양자 모두에서 뇌물공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전자는 권력 자원이 많거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위법행동에 대한 위험인식이 낮아지고, 후자는 권력 자원이 적거나 지위가 낮아서 위법행동 이외의 수단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태도가 뇌물공여 확률을 높이는 직접 효과와 다중 연결망 변수와 결합하여 뇌물공여 확률을 높이는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연구문제를 설정할 수 있다.

**연구문제 2.3:** 수직적 사회질서의 주관적 차원을 대표하는 권위주의적 태도가 강할수록 뇌물공여 확률은 높아지는가?

연구문제 2.4: 다중 연결망 활동이 활발할수록 뇌물공여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은 권위주의적 태도가 강할수록 더 커지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 3. 자료와 변수 구성

데이터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 센터가 2002년 실시한 기초질서에 관한 설문조사이다(윤정구, 석현호, 차종천, 2002). 이 조사는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대상자는 1,500명, 유효응답자는 1,436명으로 응답율은 95.7%이다. 뇌물공여를 연결망 활동을 전국 단위로 동시 측정된 것으로는 이 조사가 가장 최근 자료이다. 이는 13년 전 조사자료지만 연고주의가 뇌물공여와 연계되는 일은 최근에도 일어나는 점을 볼 때(장영훈, 2015) 현 시점에서도 적합성을 갖는다.

종속변수는 뇌물공여 여부이다. 관련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은 “일을 잘 처리해 달라고 공무원에게 선물이나 현금을 준 경우”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 처리 부탁을 받고 선물이나 현금을 준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혀 없음”, “간혹”, “다소 자주”, “상당히 자주”, “매우 자주” 중 하나로 답하였다. 응답자가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와 뇌물공여 매개의 두 가지 중 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답하면 변수값으로 0, 두 가지 활동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있다고 답하면 변수값으로 1을 부여하였다. 두 가지 응답 간

신뢰도는 높기 때문에 묶어서 변수를 구성하기에 적당하다(크론바하의 알파 = .74).

연결망 관련 독립변수는 우선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연결망 참가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계적 교류를 행하는 연결망의 수를 측정하는 “다중교류(multiple associ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연결망 특혜 태도를 보여주는 연결망의 수를 측정하는 “다중특혜(multiple favoritism)”이다(Kim and Whitaker, 2012). 다중교류를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모임이나 단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자들은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에 대해 다음 다섯 가지 항목 중 하나를 택하여 답하였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 “회원 가입만 되어 있다”, “모임에 가끔 참여했다”, “모임에 자주 참여했다”,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전혀 참여하지 않은 선택에는 0점, 나머지는 1을 부여하였다. 다중교류 변수는 세 가지 모임 중 최소한으로나마 관여한 모임이 몇 개인가로 측정하였다. 관여할 수 있는 모임이나 단체가 세 가지이므로 변수 값은 0에서 3까지이다.

두 번째 연결망 등간척도 변수는 다중특혜이다. 응답자들은 “귀하가 신입사원 한 명을 뽑아야 하는 어느 한 회사의 부서장이라고 가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동일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지원하였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귀하는 누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라는 질문을 받고 상대가 동향 사람일 때, 학교 동창일 때, 친척일 때의 세 상황에서 다음 다섯 가지 응답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매우 유리하다”, “다소 유리하다”, “그저 그렇다”, “다소 불리하다”, “매우 불리하다”. 세 가지 성격의 연줄에 대해 조금이라도 특혜를 준다고 답한 연줄의 수를 세어 다중특혜 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결망 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줄 별로 구성된 등간변수도 있다. 응답자들이 특정 연줄에서의 연결망 활동의 강도를 0에서 4까지 측정하였다. 관계적 교류의 강도는 위에서 소개한대로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주도적 역할까지, 그리고 연결망 특혜의 강도는 동일한 동창을 매우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서부터 매우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까지 순서대로 -2, -1, 0, 1, 2로 측정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변수는 관계적 교류(동창), 관계적 교류(향우), 관계적 교류(종친), 연결망 특혜(동창), 연결망 특혜(향우), 연결망 특혜(종친)의 여섯 가지이다.

수직적 사회질서 중 객관적 지위구조를 대표하는 것은 가구소득이다. 주관적 태도를 대표하는 권위주의적 태도는 세 문항 “나는윗사람이 틀린 말을 하는 경우에 공공연하게 반박하기를 겁낸다”, “부하들에게 자주 자문을 구하는 상사는 무능하다”, “윗사람은 권위와 위엄을 갖춰야 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의 다섯 항목 중 하나로 답한 것을 평균하여 사용한다(크론바하의 알파 = .50).

통제변수로는 남성 여부, 연령, 교육년수, 직업, 처벌가능성, 아노미를 사용한다. 직업의 성격이 뇌물관련활동이나 연결망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을 고려하는데



(Brass et al. 1998; Treisman 2000),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 숙련노동자, 미숙련노동자, 미취업 중 기존 연구에서 뇌물공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관리직을 가변수로 구성한다.

처벌가능성은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답을 평균하여 구한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위법행위가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적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법행위가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부도덕한 행동을 했을 때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지적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도덕한 행위를 지적받는 사람들이 평판을 나쁘게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다섯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높다”, “다소 높다”, “그저 그렇다”, “다소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처벌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는 변수는 다섯 질문에 대한 응답을 -2에서 2까지의 값을 갖는 등간척도로 바꾸어 취한 평균값이다. 다섯 문항에서 구성된 척도의 신뢰도는 높다(크론바하의 알파 = .75).

행위자들이 경험하는 아노미 효과도 기존 연구에서 뇌물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정구, 석현호, 이재혁, 2004). 응답자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게 될 세상은 더 혼란스러울 같아서 심히 걱정된다”,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상황에 따라 규칙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확고한 규칙은 없는 것 같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주 회의를 느낀다”, “살아가는데 너무 결정할 것이 많아서 결정을 포기할 때가 있다”, “신앙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진정 어떤 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 모르겠다”, “확인을 가지고 일하지 못할 때가 많다”의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다섯 항목 중 하나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평균하여 아노미 변수로 사용한다(크론바하의 알파 = .77).

## IV. 분석결과

### 1. 기술 통계

기본통계<표 1>에서 종속변수인 뇌물공여를 보면 뇌물공여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1%로 나타나 5명 중 1명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매개한 적이 있다. 뇌물공여 정도의 평균은 0.36으로서 뇌물공여 여부의 평균값 0.21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뇌물공여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1〉 기술통계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뇌물공여 정도	1432	0.36	0.84	8	0
뇌물공여 여부	1432	0.21	0.41	1	0
남성 <sup>a</sup>	1436	0.49	0.50	1	0
연령	1433	40.81	12.98	80	18
교육년수	1420	11.56	3.63	19	0
관리직 <sup>b</sup>	1436	0.03	0.16	1	0
처벌가능성	1282	2.86	0.75	5	1
아노미	1425	0.10	0.63	2	-2
가구소득(월, 만원)	1381	226.96	135.88	750	0
권위주의	1436	-0.11	0.71	2	-2
다중교류	1422	1.26	1.02	3	0
다중특혜	1432	1.81	1.21	3	0

a. 기준범주: 여성

b. 기준범주: 여타 직업

연결망 변수 중 다중교류는 다중특혜보다 변수 평균값이 더 작다. 이는 실제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시간, 돈, 관심과 같은 자원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류의 연결망 수는 특혜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연결망 수보다 더 작음을 보여준다. 수직적 사회질서를 나타내는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답을 하였다 (-0.11). 표준편차가 0.71인 것으로 권위주의적 태도를 내면화한 응답자들도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속변수를 위한 피어슨 상관계수와 서열변수를 위한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검토한 결과 회귀식의 독립변수로 동시에 포함되는 변수들에서 상관계수 절대값이 가장 큰 것은 연령과 교육수준 간 계수인 -0.61 이므로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sup>1)</sup>

## 2. 연결망의 다양성: 관계적 교류와 연결망 특혜

연고주의 연결망의 다양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관계적 교류와 연결망 특혜라는 두 가지 다중 연결망을 서로 교차시킨다.

1) 상관관계표는 너무 커서 보이지 않았는데 논문저자에게 요청하면 얻을 수 있다.

〈표 2〉 관계적 교류와 연결망 특혜 (동창회, 학연 연결망)

		관계적 교류(동창)		
		관여하지 않음	관여함	행별 합계
연결망 특혜 (동창)	없음	227 (0.40) (0.45)	340 (0.60) (0.37)	567 (0.40)
	있음	280 (0.32) (0.55)	583 (0.68) (0.63)	863 (0.60)
	열별 합계	507 (0.36)	923 (0.64)	1430

\* 각 칸의 숫자는 빈도, 행별 비율, 열별 비율이다.

동창회와 학연 연결망 활동 <표2>을 보면, 관계적 교류는 연결망 특혜와 정의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관계적 교류를 하는 사람들 중 연결망 특혜를 준다는 사람의 비율은 관계적 교류를 하지 않는 사람들 중 이 비율보다 크다. 반대로 연결망 특혜를 준다는 사람들 중 관계적 교류를 한다는 비율은 연결망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사람들 사이의 비율보다 크다. 두 변수 간 독립성을 카이제곱 검정한 결과, 카이제곱 8.615, 자유도 1, 유의도 p 값 0.003 으로서 독립성의 가설검정에서 유의도 기준인 0.05보다 훨씬 작다. 관계적 교류는 하지만 연결망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사람이나 반대로 관계적 교류를 하지 않으면서도 연결망 특혜를 준다는 사람 수는 전체 중 23.8%와 19.6%를 차지한다. 연결망 변수들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나 연관관계가 존재하므로 한 가지 연결망 활동을 하면 다른 연결망 활동도 할 확률이 높지만 반대로 서로 다른 연결망 활동에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음을 알 수 있다.

향우회와 지연 연결망과 관련된 두 연결망 변수 간 관계는 <표 3>에 있다. 두 연결망 변수 간 독립성을 검정해보면 카이제곱 11.037, 자유도 1, 유의도 p 값 0.000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향우회 활동에 참여할수록 연결망 특혜를 줄 확률이 커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두 가지 연결망 활동 중 어느 하나만 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크기 때문에 연결망 활동이 다양함을 고려해야 한다.

〈표 3〉 관계적 교류와 연결망 특혜 (향우회, 지연 연결망)

		관계적 교류(향우)		
		관여하지 않음	관여함	행별 합계
연결망 특혜 (향우)	없음	525 (0.78) (0.50)	150 (0.22) (0.40)	675 (0.47)
	있음	528 (0.70) (0.50)	226 (0.30) (0.60)	754 (0.53)
	열별 합계	1053 (0.74)	376 (0.26)	1429

\* 각 칸의 숫자는 빈도, 행별 비율, 열별 비율이다.

종친회와 혈연 연결망과 관련된 두 연결망 변수 간 관계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두 연결망 변수 간 독립성을 검정해보면 카이제곱 6.62, 자유도 1, 유의도 p 값 0.01이므로 관계적 교류에 참여하는 사람은 연결망 특혜를 주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두 연결망 활동 중 어느 하나만 행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

<표 4> 관계적 교류와 연결망 특혜 (종친회, 혈연 연결망)

		관계적 교류(종친)		
		관여하지 않음	관여함	행별 합계
연결망 특혜 (종친)	없음	321 (0.69) (0.35)	146 (0.32) (0.29)	467 (0.33)
	있음	593 (0.62) (0.65)	367 (0.38) (0.71)	960 (0.67)
	열별 합계	1053 (0.74)	513 (0.36)	1427

\* 각 칸의 숫자는 빈도, 행별 비율, 열별 비율이다.

혈연 연결망 변수에서는 다른 연결망과는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종친회에 관여한다는 비율은 74%로서 향우회와 마찬가지로 높은 반면, 연결망 특혜를 준다는 비율은 67%로서 학연 연결망 특혜 비율 60%나 지연 연결망 특혜 비율 53%에 비해 더 높다. 혈연 연결망은 구성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현대로 올수록 명시적인 혈연 단체 활동은 줄어들었지만 동일 연결망 구성원을 편애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뇌물공여와 관련해서 예상한다면 혈연 연결망을 통하는 뇌물공여는 상대적으로 덜 혼할 수 있지만 그 강도는 클 수 있다.

연결망의 내용을 보면 학연 연결망은 활발한 동창회 관여를 통해 이루어지며 연결망 특혜 비율도 높다. 지연 연결망은 단체 참여나 연결망 특혜 비율이 다른 두 연결망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혈연 연결망에서는 단체 참여율은 저조하지만 연결망 특혜 비율은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두 변수 간 연관관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연결망 활동 중 어느 하나에만 관여하는 비율도 높다(연구문제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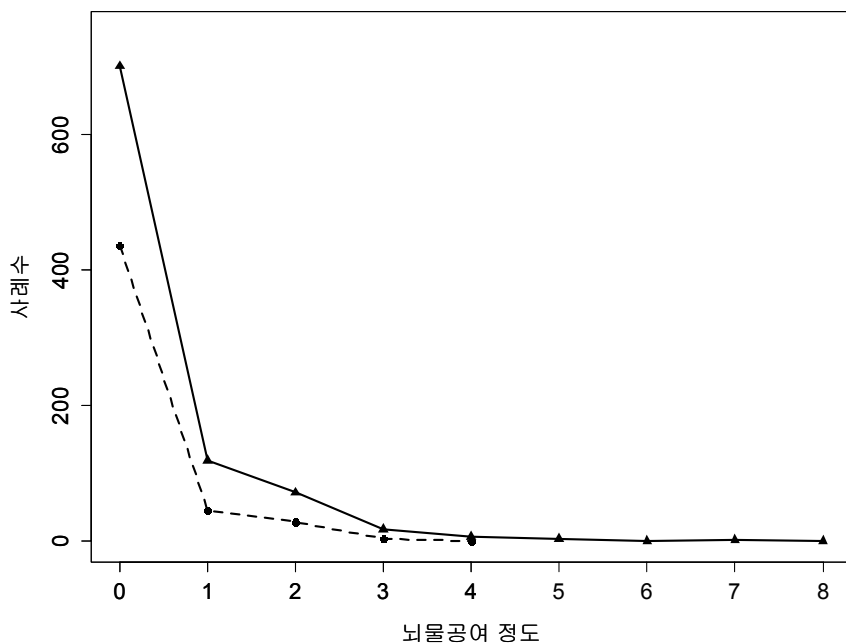
### 3. 연결망 변수와 뇌물공여

관계적 교류와 연결망 특혜는 뇌물공여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다양할 수 있다. 이를 보기 위해 종속변수를 뇌물공여 여부로 놓고, 독립변수를 관계적 교류와 연결망 특혜로 하는 로짓 모형 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회귀분석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속형 변수인 뇌물공여의 정도를 종속변수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보기 위해 독립변수인 연결망 변수의 특정 값 별로 뇌물공여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먼저 검

토한다.

학연 연결망의 경우를 보기 위해 동창회를 통한 관계적 교류 여부에 따른 뇌물공여 정도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다<표 5>. 이 그래프는 동창회에 관여하는 사람들과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뇌물공여 정도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우선, 동창회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물공여 정도가 더 높다. 동창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뇌물공여 정도가 8까지 있는 반면 동창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뇌물공여 최대값이 4이다. 다음으로, 뇌물공여정도의 빈도분포는 정규분포나 기타 대칭적 확률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동창회 참여를 설명변수로 하는 분석에서 보통최소제곱(OLS) 회귀분석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분석에서는 뇌물공여 여부에 대한 로짓 모형을 사용한다.

〈표 5〉 관계적 교류 여부에 따른 뇌물공여 정도의 분포



표주. 실선은 동창회에 관여하는 경우, 점선은 관여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는 뇌물공여 여부, 독립변수는 관계적 교류와 연결망 특혜 변수를 이분변수로 만들어 포함시킨 모형을 검토한다. 로짓 모형을 자료에 적용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관계적 교류와 연결망 특혜가 뇌물공여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모형 1(학연)	모형 2(지연)	모형 3(혈연)
상수	-2.13 (0.22)***	-1.82(0.13)***	-1.81(0.16)***
관계적 교류 이분변수	0.77 (0.25)**	1.00(0.22)***	0.66(0.25)**
연결망 특혜 이분변수	0.70 (0.26)**	0.47(0.17)**	0.42(0.19)*
관계적 교류* 연결망 특혜	-0.35 (0.31)	-0.42(0.28)	-0.20(0.30)
잔여편차	1443.8	1427.1	1446.7
자유도	1422	1421	1419
유의도 p 값	0.337	0.45	0.30

\* p&lt;.05; \*\* p&lt;.01; \*\*\* p&lt;.001 (양측 검정)

포화모형 대비 잔여편차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모형은 데이터를 잘 대표한다. 연결망 특혜보다는 관계적 교류 변수가 뇌물공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학연 연결망에서는 양자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지연이나 혈연 연결망에서는 추정치 계수의 값에서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연결망 변수가 뇌물공여에 미치는 영향도 일정하지 않고, 연결망 활동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서는 뇌물공여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 영역도 존재한다.

〈표 7〉을 보면 학연 연결망의 경우 관계적 교류와 뇌물공여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관계가 있다. 관계적 교류에 참여하면서도 뇌물을 공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62%에 이른다. 반대로 관계적 교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뇌물을 공여하는 사람은 15%이다. 즉, 관계적 교류와 뇌물공여 사이에는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지만 연관관계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표 7〉 관계적 교류와 뇌물공여 (학연 연결망)

		관계적 교류 (동창)		
		관여하지 않음	관여함	행별 합계
뇌물공여	공여하지 않음	430 (0.38) (0.85)	695 (0.62) (0.76)	1125 (0.79)
	공여함	78 (0.26) (0.15)	224 (0.74) (0.24)	302 (0.21)
	열별 합계	508 (0.36)	919 (0.64)	1427

\* 각 칸의 숫자는 빈도, 행별 비율, 열별 비율이다.

〈표 8〉은 학연 연결망에서 연결망 특혜와 뇌물공여 간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도 열별 비율을 보면 관계적 교류에 참여 여부에 따라 뇌물공여 여부가 분명히 달라진다. 그러나 동창에게 연결망 특혜를 주면서도 뇌물을 공여하지는 않는 사람이 특혜를 주는 사람 중 76%에 이른다. 반대로 동창에게 특혜를 주지 않지만 뇌물을 공여하는 사람의 비율은 16%로서 뇌물공여와 관련해서 볼 때 연결망 변수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표 8〉 연결망 특혜와 뇌물공여 (학연 연결망)

		연결망 특혜 (동창)		
		없음	있음	행별 합계
뇌물공여	공여하지 않음	475 (0.42) (0.84)	653 (0.58) (0.76)	1128 (0.79)
	공여함	93 (0.31) (0.16)	209 (0.69) (0.24)	302 (0.21)
	열별 합계	568 (0.40)	862 (0.60)	1427

\* 각 칸의 숫자는 빈도, 행별 비율, 열별 비율이다.

<표 9>와 <표 10>은 혈연 연결망에서 관계적 교류와 뇌물공여, 그리고 연결망 특혜와 뇌물공여 간 교차표를 보여준다. 혈연 연결망에서도 연결망 변수와 뇌물공여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계적 교류를 하거나 연결망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뇌물공여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면 연구문제 1.2에 대해 연결망의 기능적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연 연결망에 대해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학연이나 혈연 연결망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표 9〉 관계적 교류와 뇌물공여 (혈연 연결망)

		관계적 교류 (종친)		
		관여하지 않음	관여함	행별 합계
뇌물공여	공여하지 않음	748 (0.67) (0.82)	375 (0.33) (0.73)	1123 (0.79)
	공여함	163 (0.54) (0.18)	138 (0.46) (0.27)	301 (0.21)
	열별 합계	911 (0.64)	513 (0.36)	1424

\* 각 칸의 숫자는 빈도, 행별 비율, 열별 비율이다.

〈표 10〉 연결망 특혜와 뇌물공여 (혈연 연결망)

		연결망 특혜 (종친)		
		없음	있음	행별 합계
뇌물공여	공여하지 않음	388 (0.34) (0.83)	740 (0.66) (0.77)	1128 (0.79)
	공여함	80 (0.26) (0.17)	222 (0.74) (0.23)	302 (0.21)
	열별 합계	468 (0.33)	962 (0.67)	1430

\* 각 칸의 숫자는 빈도, 행별 비율, 열별 비율이다.

## 4. 수직적 사회질서, 연결망, 뇌물공여

수직적 사회질서가 연결망과 더불어 뇌물공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한 연구문제 2.1과 2.2를 검토하기 위해 뇌물공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서 다중연결과 다중특혜, 가구소득, 권위주의적 태도를 포함시킨 모형을 먼저 살펴본다. <표 11>의 모형4에 의하면 처벌가능성을 인지할수록 뇌물공여 확률이 감소할 뿐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뇌물공여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기여한다. 수직적 사회질서를 나타내는 가구소득과 권위주의 변수는 둘 다 뚜렷하게 양의 효과를 보여준다. 권위주의적 태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뇌물공여 확률은  $\exp(0.30)/(1+\exp(0.30)) = 0.57$ , 즉 57% 증가한다. 가구소득 역시 큰 영향을 미쳐서 가구소득이 100만원 증가하면 뇌물공여 확률은 55% 증가한다. 수직적 사회질서는 뇌물공여 확률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되는 교육의 효과도 뇌물공여 확률을 높인다. 교육수준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뇌물공여가 비교적 자주 있는 주요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뇌물공여 확률이 높다는 주장도 있지만 모형에서 관리직 가변수로 직업 효과를 통제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어렵다. 뇌물공여에 관한 한 교육이 갖는 계몽 효과는 없을 뿐 아니라 반대로 교육은 오히려 불법적인 기회주의적 행위를 증진시킨다. 사회계층의 주요 구성요소인 소득, 교육, 관리직 모두 뇌물공여 확률을 높이므로 계층지위가 높아질수록 뇌물공여도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수직적 사회질서, 다중교류, 다중특혜가 뇌물공여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모형 4	모형 5	모형 6
상수	-4.50(1.00)***	-3.68(1.06)***	-4.50(1.01)***
남자	0.54(0.16)**	0.57(0.16)***	0.54(0.16)***
연령	0.09(0.04)*	0.09(0.04)*	0.09(0.04)*
연령제곱	-0.001(0.0005)*	-0.001(0.0005)*	-0.001(0.0005)*
교육년수	0.07(0.03)*	0.06(0.03)*	0.07(0.03)*
관리직	0.93(0.38)*	0.91(0.39)*	0.94(0.39)*
처벌가능성	-0.30(0.10)**	-0.30(0.10)**	-0.30(0.10)**
아노미	0.50(0.13)***	0.50(0.13)***	0.52(0.13)***
다중교류	0.29(0.08)***	0.08(0.16)	0.31(0.08)***
다중특혜	0.11(0.07)·	-0.09(0.13)	0.10(0.07)
가구소득	0.002(0.0006)***	-0.0006(0.001)	0.002(0.0006)***
권위주의	0.30(0.11)**	0.29(0.11)**	-0.06(0.24)
다중교류*소득		0.0008(0.0006)	
다중특혜*소득		0.0008(0.0005)·	
다중교류*권위주의			0.32(0.10)**



다중특혜*			-0.06(0.09)
권위주의			
잔여편차	1128.2	1122.8	1118.5
자유도	1185	1183	1183
유의도 p 값	0.88	0.89	0.91

· p<.10; \* p<.05; \*\* p<.01; \*\*\* p<.001 (양측 검정)

수직적 사회질서와 연결망 변수가 결합하여 뇌물공여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살펴본다. 우선 연결망 변수와 수직적 사회질서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관계수를 보면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다중교류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반면 (0.027, p=0.31) 다중특혜와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0.15, p=0.00000007). 가구소득은 반대로 다중교류와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0.954, p=0.04) 다중특혜와는 별 관계가 없다(0.009, p=0.73). 소득이 많은 행위자들 사이에서는 관계적 교류 활동이 높은 반면, 권위주의적 태도가 강한 행위자들 사이에서는 연결망 특혜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소득이나 관계적 교류는 둘 다 실제 활동과 관련된다면 권위주의적 태도나 연결망 특혜는 태도나 생각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모형 5에서는 다중교류와 다중특혜의 두 연결망 변수에 가구소득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포함시켰으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따라서 가구소득 변수가 연결망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뇌물공여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모형 6은 수직적 사회질서 변수로서 가구소득 대신 권위주의적 태도를 다중 연결망 변수와 곱한 상호작용항을 포함한다. 그 결과 권위주의는 다중교류와 상호작용하면서 뇌물공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중교류의 뇌물 효과가 더 크다.

다음으로 <표 12>의 모형 7은 다중교류를 중심으로 하여 소득과 권위주의적 태도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포함시켰고, 모형 8은 다중특혜를 중심으로 하여 소득과 권위주의적 태도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포함시켰다. 다중교류를 중심으로 수직적 사회질서와 상호작용항을 구성할 때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 반면, 다중특혜를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항의 효과는 무의미하다. 모형 7은 다중교류가 수직적 사회질서의 영향을 받아 뇌물공여 확률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표 12> 수직적 사회질서, 다중교류, 다중특혜가 뇌물공여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모형 7	모형 8	모형 9
상수	-4.02(1.04)***	-4.01(1.04)***	-3.61(1.07)***
남자	0.55(1.04)***	0.57(0.16)***	0.57(0.16)***
연령	0.09(0.04)*	0.09(0.04)*	0.09(0.04)*
연령제곱	-0.001(0.0005)*	-0.001(0.0005)*	-0.001(0.0005)*

교육년수	0.07(0.03)*	0.06(0.03)*	0.07(0.03)*
관리직	0.96(0.39)*	0.92(0.38)*	0.93(0.39)*
처벌가능성	-0.31(0.10)**	-0.30(0.10)**	-0.30(0.10)**
아노미	0.52(0.13)***	0.50(0.13)***	0.52(0.13)***
다중교류	0.03(0.16)	0.28(0.08)***	0.04(0.16)
다중특혜	0.11(0.07)	-0.10(0.13)	-0.07(0.13)
가구소득	0.0006(0.001)	0.0006(0.001)	-0.0007(0.001)
권위주의	-0.20(0.19)	0.30(0.20)	-0.10(0.24)
다중교류*소득	0.001(0.0006)*		0.001(0.0006)
다중특혜*소득		0.0008(0.0005)	0.0007(0.0005)
다중교류*	0.34(0.10)**		0.34(0.10)**
권위주의			
다중특혜*		-0.007(0.09)	-0.06(0.09)
권위주의			
잔여편차	1114.9	1124.9	1112.1
자유도	1183	1183	1181
유의도 p 값	0.92	0.89	0.92

· p<.10; \* p<.05; \*\* p<.01; \*\*\* p<.001 (양측 검정)

마지막으로 모형 9는 연결망 변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항과 연결망 변수와 권위주의적 태도의 상호작용항을 다 포함한다. 결과를 보면, 다중교류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고 대신 다중교류와 권위주의적 태도 간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다중교류가 크고 권위주의적 태도가 강하면 뇌물공여 확률이 높아진다. 결국 수직적 사회질서는 독립적으로도 뇌물공여 확률을 높이고 다중 연결망 변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뇌물공여 확률을 높이기도 한다.

## V. 토론과 결론

본 연구는 전국규모의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첫째, 행위자들의 연결망 활동이 내적으로나 뇌물공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중 연결망 활동이 전체적으로 뇌물공여 확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중 연결망 활동을 하면서도 뇌물공여는 전혀 하지 않는 행위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뇌물공여 의도와는 상관없는 순수한 인적 교류 활동으로서 연결망 활동이 다수 존재함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다중 연결망 활동이 어떤 경우에 뇌물공여 확률을 높이는가를 질문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중 연결망 활동과 뇌물공여를 매개해주는 변수로서 수직적 사회질서를 지목하여 검토한 결과 수직적 사회질서 변수인

가구소득과 권위주의적 태도가 연결망 활동에 의한 뇌물공여 확률을 높여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도 있다. 첫째, 다중 연결망 활동과 권위주의적인 태도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타인들과의 연결 활동이 수직적 분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타인들과의 연결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인지도 본 연구에서는 분명히 밝혀내지 못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가지 수직적 사회질서 변수가 두 가지 다중 연결망 변수와 선별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점이 흥미롭지만 양자 간 인과관계는 찾지 못하였다. 이는 추후 연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통제 변수 중 아노미 변수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행위자들이 상황 정의를 분명히 하지 못하거나 행동방식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갖지 못하면 권위주의적 태도를 더 쉽게 갖게 되거나 사회적 지위에 더 의지하고 뇌물과 같은 위법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추후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권오성. (2005). 한국 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에 관한 연구.” 엄구호(편). 『동북아 국가의 부패: 문화, 구조, 정책』. 115-146. 서울: 역락.
- 김동훈. (2002). 『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 학벌주의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도서출판 더북.
- 김우식. (2002). 구조적 신호 읽기: 연결망 구조와 규칙위반 행위의 조응방식. 『한국사회학』. 36(6): 57-82.
- 김우식. (2012). 사회연결망이 뇌물의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패학회보』. 16(2): 25-49.
- 김영중. (1996). 『부패학』.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 박바름 · 김석호 · 김병수. (2011). 삼자관계와 사회적 고립이 준법의식과 뇌물공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5(2): 176-202.
- 백완기 · 전수일 · 하태권 · 박종구 · 이선우. (2000). 공직부패에 대한 연결망 이론적 접근. 『한국행정학회보』. 34(2): 79-100.
- 신의항 · 송효환. (2003). 한국재벌기업의 집단주의와 사회연결망. 김성국 · 석현호 · 임현진 · 유석춘 편.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한국의 집단주의와 네트워크』. 246-339. 서울: 전통과 현대.
- 윤정구 · 석현호 · 이재혁. (2004). 한국사회 무질서의 사회심리적 메커니즘 연구: 기초질서 위반과 뇌물공여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8(2): 63-99.
- 윤정구 · 석현호 · 차종천. (2002). 『사회질서에 관한 조사연구』. KOSSDA-2002-002. 서울: 한국사회과학자료아카이브.
- 유의영. (2003). 한국의 지역주의: 사회 각 분야 지도급 인사 구성에 나타난 지역편중도. 김성국, 석현호, 임현진, 유석춘(공편).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한국의 집단주의와 네트워크』. 128-191. 서울: 전통과 현대.
- 장영훈. (2015). ㅉ, 초등 동창-친구들과 다단계 회사 설립... 측근 강태용도 고교인맥 활용해 검경 접근. 『동아일보』. 10. 17. <http://news.donga.com/3/all/20151017/74215685/1#>
- Baker, Wayne and Robert R. Faulkner. (1993). The Social Organization of Conspiracy: Illegal Networks in the Heavy Electrical Equipment Indust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837-60.
- Baker, Wayne and Robert R. Faulkner. (2004). Social Networks and Loss of Capital. *Social Networks*. 26: 91-111.
- Beckman, Christine and Pamela Haunschild. (2002). Network Learning: The Effects of Partners' Heterogeneity of Experience on Corporate Acquisi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7: 92-124.
- Brass, Daniel J., Kenneth D. Butterfield, and Bruce C. Skaggs. (1998). Relationship and Unethical Behavior: A Social Network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1): 14-31.
- Brown, John S. and Paul Duguid. (1991). Organizational Learning and Communities-of-Practice: Toward a Unified View of Working, Learning, and Innovation. *Organization Science*. 2(1): 40-57.

- Browning, Christopher R., Seth L. Feinberg, and Robert D. Dietz. (2004). The Paradox of Social Organization: Networks, Collective Efficacy, and Violent Crime in Urb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3(2): 503-534.
- Burt, Ronald. (1983). Range. In Ronald S. Burt and Michael J. Minor(eds.). *Applied Network Analysis*. 176-194. Beverly Hills: Sage.
- Burt, Ronald. (2002). *Brokerage & Closure: An Introduction to Social Capit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entola, Damon, Michael W. Macy, and Victor M. Eguiluz. (2005). Cascade Dynamics of Multiplex Propagation. *Physica A*. 374: 449-456.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 DiMaggio, Paul (1997). Culture and Cogni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263-287.
- DiMaggio, Paul, and Hugh Louch. (1998). Socially Embedded Consumer Transactions: For What Kinds of Purchases Do People Most Often Use Networ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619-637.
- Gambetta, Diego. (1993). *The Sicilian Mafia: The Business of Private Prote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ibbons, Deborah E. (2004). Friendship and Advice Networks in the Context of Changing Professional Valu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9(2): 238-262.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360-1380.
- Granovetter, Mark. (2007). The Social Construction of Corruption. In Victor Nee and Richard Swedberg(eds.). *On Capitalism*. 152-172.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ines, Valerie A. and Jeanne S. Hurlbert. (1992). Network Range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254-266.
- Johns, Leigh, and Mirko Bagaric. (2002). Bribery and Networking: Is There a Difference? *Deakin Law Review*. 7(1): 159-171.
- Karaca-Mandic, Pinar, Edward C. Norton, and Bryan Dowd. (2012). Interaction Terms in Nonlinear Models. *Health Services Research*. 47(1): 255-274.
- Kim, Usic, and Mark D. Whitaker. (2012). Network Subversion: The Contrasting Effects of Multiple Networks on Bribery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41: 16-35.
- Kollock, Peter and Jodi O'Brien. (1992). The Social Construction of Exchange. In Edward Lawler, Barry Markovsky, Cecilia Ridgeway, and Henry A. Walker(eds.). *Advances in Group Processes*, Vol. 9. 89-112. Greenwich: JAI Press.
- Milroy, Lesley and James Milroy. (1992). *Social Network and Social Class: Toward an Integrated Sociolinguistic Model*. *Language in Society*. 21(1): 1-26.
- Nissani, Moti. (1990). A Cognitive Reinterpretation of Stanley Milgram's Observations on Obedience to Authority". *American Psychologist*. 45(12): 1384-1385.

- Orr, Julian. (1990). Sharing Knowledge, Celebrating Identity: War Stories and Community Memory in a Service Culture. In David Middleton and Derek Edwards(eds.). *Collective Remembering*. 169-189.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Parsons, Talcott, and Edward Shils(eds.). (1951).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ortes, Alej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Powell, Walter W., Kenneth W. Koput, and Laurel Smith-Doerr. (1996).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nd the Locus of Innovation: Networks of Learning in Biotechnolog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1: 116-145.
- Putnam, Robert.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eagans, Ray, and Bill McEvily. (2003). Network Structure and Knowledge Transfer: The Effects of Cohesion and Rang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8: 240-267.
- Schuller, Tom, Stephen Baron, and John Field. (2000). Social Capital: A Review and Critic. In Stephen Baron, John Field, and Tom Schuller(eds.). *Social Capital*. 1-3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reisman, Daniel. (2000). The Causes of Corruption: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6(3): 399-457.
- Younts, C. Wesley. (2008). Status, Endorsement and the Legitimacy of Deviance. *Social Forces*. 87(1): 561-590.
- Zelditch, Morris, Jr. (2001). Processes of Legitimation: Recent Developments and New Direct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4(1): 4-17.

투고일자 : 2015. 11. 30

수정일자 : 2015. 12. 29

게재일자 : 2015. 12. 31

## &lt;국문초록&gt;

## 수직적 사회질서, 다중 연결망, 뇌물공여 간 관계에 대한 연구

김 우 식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수직적 사회질서, 다중 연결망, 그리고 뇌물공여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뇌물친화적인 연결망과 그렇지 않은 연결망을 구분함으로써 기존 연구에 비해 연결망의 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보여준다. 사회연결망과 뇌물공여 간의 관계가 다양한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수직적 사회질서가 뇌물공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연결망과 뇌물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토한다. 수직적 사회질서에서 상위층에 있는 행위자는 자신의 지위로 인해 뇌물공여에 따르는 위험인식의 완화를 경험함으로써 뇌물공여 행위에 보다 적극적이거나 연결망 활동을 통해 뇌물공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하위층에 있는 행위자는 높은 불확실성 하에서 뇌물공여 외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규모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수직적 사회질서를 나타내는 변수로 가구소득과 권위주의적 태도를 선택하여 두 변수가 뇌물공여에 직접 미치는 영향과, 다중 연결망 변수와 상호작용하면서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분석결과 가구소득과 권위주의적 태도는 다중 연결망 변수와 결합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뇌물공여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사회연결망, 뇌물공여, 다중교류, 다중특혜, 수직적 사회질서, 권위주의적 태도